



김기빈 | 한국토지공사 지명연구위원 /
중앙지명위원회 위원(ddangk@hanmail.net)

만경강(萬頃江)과 동진강(東津江), 그리고 새만금과 새의 인연

새만금은 날개길이 33km의 웅비하는 봉(鵬)새

길이 33km, 세계 최장의 방조제(防潮堤)인 새만금은 넓이 1억 2천 만 평,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국토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아우르는 해안의 갯벌을 막아서 조성하는 대역사이다.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91년 11월 28일 처음 방조제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6년 4월 29일까지 15년 만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마쳤으며, 2011년까지 내부 개발을 마치려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새만금 사업은 알고 보면 만경강과 동진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그 하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두 강은 곧 새만금의 어머니가 되는 셈이다.

노태우-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무려 다섯 정권이 바통을 이어받듯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그동안 우여곡절과 파란만장의 진통을 겪으면서 이루어진 대 사업이요, 그만큼 각계와 국민들로부터 각별한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방조제의 안쪽 내륙은 유명한 김제-만경평야이며 이를 줄여서 '금만평야'라고도 부르지만, 현지 주민들은 이곳을 '징계맹경 외애밋들'이라 부르고 있다. 여기서 '징계맹경'은

'김제 만경'의 전북지방 방언이요, '외애밋들'은 '외배밋들'로서 김제평야와 만경평야가 마치 논 한 배미-외배미처럼 끝없이 펼쳐지므로(그래서 김제 쌀도 '지평선쌀'이라 한다) '외배밋들'이라 한 것이 '외애밋들'로 방언화된 것이다.

그런데 왜 이 방조제를 '새만금'이라 하였을까? 김제-만경 두 평야의 머리글자를 합하면 '김만(금만)'이 되는데, 방조제 명칭에서는 '만금(만경-김제)'으로 바뀐 것이다. 그것은 만경강의 수량(水量)이 동진강보다 많은 점, 두 평야를 위(북)에서부터 차례로 붙였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만'보다 '만금'이라는 용어가 훨씬 부르기 편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만금의 앞에 붙은 '새'의 내력이 재미있다.

1987년 11월 2일 정부의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해안 간척사업 추진문제를 논의할 때 이곳 명칭을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결정하였다. 그 까닭은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알겠지만, 방조제와 그내륙의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그려보면 마치 서쪽을 향하여 날아가는 커다란 새가 되기 때문이다.

즉 지형상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가 새의 꼬리가 되고, 방조제의 서쪽 끝 모서리가 되는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연결하면 남쪽의 방조제는 날개, 신시도는 새의 머리 부분이 된다. 그리하여 「새만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¹⁾ 여기에 만경



평야(만경강), 김제평야(동진강)의 옥토를 새롭게 일구어낸다는 의미를 추가하게 되었으니, 이 '새'는 조(鳥)와 신(新)의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면서 황해를 건너 중국으로, 세계로 날아가는 웅비(雄飛)의 새, 하늘로 비상(飛上)하는 도약의 상징적 의미를 뜻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새만금 방조제는 「방조제(放鳥堤)」로 써도 될 것이다. 『장자(莊子)』에 의하면 봉(鵬)이라는 새는 날개 길이 3천리요, 한번 날개 짓에 9만 리를 날아간다고 하였다. 날개 길이 33km의 새만금은 「봉정만리(鵬程萬里)」의 장도(壯途)에 오르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만금이 '날아가는 새'와 인연이 깊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만경강과 동진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그 사이의 황해로 돌출한 반도가 진봉반도(進鳳半島-김제시 진봉면과 진봉산이 있다)이다. '진봉'은 봉황새가 나아간다(날아간다)는 뜻으로서 새만금의 '새'와 서로 통한다. 또 새만금 방조제의 북쪽 끝은 군산시 비응도(飛鷹島-지금은 육지화 되고 항구로 개발되었다)로서 '날으는 매'를 뜻하며, 이 방조제의 남서쪽에는 '날으는 기러기'를 뜻하는 비안도(飛雁島)가 있어서 새만

금 방조제와 '날으는 새'의 인연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만경강-만경평야와 동진강-김제평야가 만들어낸 새만금

만경성이 만 이랑의 연꽃길, 가던 손 고삐잡고 푸른 연기 속에 서있네.

정정하게 서서 비 맞으니 참 일산이루고, 깨끗한 물결 위에 섰으니 곧 신선이 되려 하는구나.

- (후략) (원문 생략)

『신증동국여지승람』 만경현조 능제(陵堤)²⁾에 나오는 김종직(金宗直)의 시이다. 만경강은 옛 문헌에 신창진(新倉津)으로 나온다. '만경'이라는 이름은 조선조 후대에 붙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이 본래 만경고을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1) 월간 『지치행정』 (2006, 5월호) 속표지 해설문
2) 지금도 김제시 만경면 소재지에 커다란 능제저수지가 있다.



지금의 김제시 만경면 일대는 옛날 만경현이 있었다. 이 곳은 본래 백제의 두내산현(豆乃山縣)인데 757년(신라 경덕왕 16) 만경현으로 고친 이름으로서 만경의 '경(頃)'은 백무(百畝)-백 이랑의 들로서 약 5천 평의 면적을 말하므로, '만경'이란 끝없이 뻗은 일망무제(一望無際)의 들판을 가리키는 말이다.

만경강은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에서 발원하여 여러 물줄기를 합하고 서쪽으로 흐르다가 진봉반도와 군산시 사이에서 새만금 바다에 합류하는 길이 80.86km의 국가하천이다.

한편 만경강의 아우가 되는 동진강은 옛 이름도 동진(東津)이었다. 처음 필자가 동진(東津-동쪽 나루)이라는 이름에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서해안에 동쪽나루를 뜻하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동진강이라는 이름은 옛 부안 고을의 동쪽 16 리에 있으므로 고을의 '동쪽 나루'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서 벽골제, 놀제의 물이 합쳐서 북으로 흘러 이 나루가 된다고 하였다.³⁾

이 '동진'의 이름을 따서 일제 때인 1928년 동진농업주식

회사(동진농장)가 임실군 강진면에 운암제를 축조하였고, 1965년 운암제 아래 섬진강 다목적 댐을 건설하여 유역변경식 발전과 함께 섬진강 물을 김제평야의 계화도 간척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게 되었다.

김제시 금구면의 상왕산 물은 벽골제가 되어 서쪽으로 흐르고, 또 정읍 내장산 까치봉의 북쪽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은 길이 51.03km의 국가하천인 동진강의 원류가 되며, 서포리 앞바다에서 원평천 등을 보탠 후 새만금으로 흘러든다.

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두 강기슭에는 김제 화포리의 진묵대사 이야기를 비롯하여, 김제 벽골제 축조 당시 제물이 된 단야의 이야기 등 곳곳에 수많은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를 생략한다. 다만 동진강 하구가 되는 김제시 부량면에는 금강리라는 이름이 남아서 동진강의 또 다른 옛 이름이 금강(鎭江)이었음을 전해주고 있다.

많은 양의 금을 가리켜 천금(千金) 혹은 만금(萬金)이라고 한다.

금은 녹슬지 않는 불변의 금속으로서 영원, 영생을 상징하

3)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안현 산천조)



기도 하고, 또 귀하고 완전한 것, 혹은 돈과 부와 권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신라 초기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황금궤에서 나오고, 가야국의 김수로왕과 6가야의 시조가 금합 속의 황금 알에서 나온 것은 그들이 모두 천손(天孫) - 하늘의 자손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알타이인들은 금을 매우 숭배하였는데, '알타이'라는 말이 금(金)을 뜻한다고도 한다. 신라가 박씨, 석씨에 이어 왕족들이 성을 김씨로 하고, 임금이 금관을 썼다든지, 서라벌을 금성(金城)이라 한 것은 기마민족의 후예이자 알타이인의 후예로서 금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황하게 금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지만, 천만금(千萬金)이나 억만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새만금」이다.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에 만들어지는 광활한 새 땅. 확장된 이 땅이야말로 이 나라 국토와 산업의 미래를 가능하게 될 소중한 자원이며, 만경강과 동진강이 빛어낸 상전벽해(桑田碧海), 천지개벽(天地開闢)의 현장임에 틀림없다. 🌐